

읽는 인간

지금까지의 이 과묵한 에세이들은 과학과 인문학이 공유할 만한 고민들을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다뤄왔습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시선을 약간 바꿔볼까 싶습니다. 그간 과잉생산과 과잉 소비, 분배의 양극화, 노동의 인종화와 젠더화, 인간의 자연-동물 착취와 그 후과(後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문학자인 제가 저의 직업적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조금 공유해볼까 합니다.

‘인문학의 위기’ 운운의 말은 한동안 너무 자주 언급되어 이제 식상하기 짝이 없는 말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여전히 멸종되지 않고^^; 인문학자로서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제 ‘위기’라는 말로도 적절하지 못할 정도로 축소된 인문학의 상황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난망한 기분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저처럼 국문학 전공자들이 대학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글쓰기 교육’입니다.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인문학 기반의 교양교육이 ‘글쓰기’입니다. 제가 글쓰기 강의 시간에 접하고 있는 또 다른 ‘지나침’, 또 하나의 공해가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공해입니다.

디지털 정보의 바다 속에서 글쓰기 교육이 처한 문제를 집약하고 있는, 최근의 유행어는 ‘문해력(文解力, Literacy)’입니다. 전문가들이 한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를 지적해오곤 했지만, 이 문제가 최근 급부상하게 된 것은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정보 문해력 부문에서 최하위권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후 같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피싱 메일을 보고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 최하위권에 들어갔고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을 보는 평가에서도 제일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죠. 저는 대학에서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마다 일학년 학생들을 만나 글쓰기를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가 학생들에게서 관찰해온 문해력 저하의 심각성을 확인해준 것 같은 뉴스였습니다.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예전에는 글쓰기가 어렵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주로 써먹던 변명은 ‘어릴 때 책을 많이 안 읽어서’로 공식화되어 있곤 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덮어놓고 “책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라는, 답하는 사람에게는 쉽고 듣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고도 뜨악한 답변도 마치 어떤 공식처럼 존재했었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서로 분리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많이 읽기만 하면 모두가 자동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안일한 답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최근 떠오른 청소년들의 문해력 문제는 독서 부족 문제로 축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읽을거리는 오히려 과잉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이 하루 평균 접하는 정보는 34기가바이트에 달하는데 미국인 한 명이 하루 동안 읽는 단어 수가 웬만한 소설에 나오는 단어 수와 같을 정도라고 합니다. IT강국을 자처하는 한국 역시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 경향성에서는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읽는다’는 점에서만 보자면 과거의 학생들보다 지금의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양의 글자를 읽고 있을 겁니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수용되기 쉽도록 요약 정리되고 편집된 읽을거리들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양상이 우리가 장시간 주의를 기우려 복합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구축해야 하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읽기 능력의 함양에는 방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양하고 새롭지만 파편화되고 평면화되기 쉬운 ‘정보’가 자기 ‘지식’으로 전환되는 인지의 과정을 중도에서 중지시키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글

쓰기 교실에서 매일 매일 만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학생들은 빨리, 많이, 그러나 대충 읽습니다. 긴 글을 같이 읽게 되면 급격하게 주의력이 떨어지죠. 천천히 꼼꼼히 읽어나가는 작업을 몹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화된 맥락이 결여되면서 더욱 더 외부 지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 글을 쓰는 일과 정보들의 모자이크 짜집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학생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독서가 주된 노동이고 글쓰기 선생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사이 긴 호흡의 글을 읽는 주의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있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멀티태스킹에 능한 사람도 아니라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한꺼번에 다양한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변명할 여지도 없이 그저 주의력 결핍만 앓고 있는 경우에 속합니다. ‘읽는 뇌’를 연구한 저명한 인지신경학자 메리언 울프 같은 사람은 디지털 기기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신호와 자극들이 주의과잉, 주의분산, 환경에 대한 주의결여 등의 문제를 만들면서 ‘읽기’를 위해 만들어진 뇌의 인지 과정 자체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깊이 있는 읽기 능력의 상실에 따르는 더 중대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공감능력과 고독해지는 능력의 상실입니다. 이는 인류 문명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능력들이지요.

기후위기 문제가 편중된 과잉과 편중된 결핍을 계속 논하게 되는 것처럼, 디지털화된 세계의 글쓰기 교실에 존재하는 과잉된 말과 결핍된 생각이라는 현상도 현재 우리 문명이 놓여 있는 심대한 아이러니 중 하나처럼 여겨집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노출되고 공개되는 과잉 정보들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반응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대선판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이대남’, ‘이대녀’ 등의 단어들을 들으며 학생들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젠더’라는 단어는 반목과 갈등의 ‘땀’이 되어버린 듯합니다만 흥미롭게도 과거 ‘종교’나 ‘정치’만큼이나 글쓰기 교실의 토론 현장에서 터부시되는 말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메리언 울프는 우리의 읽기능력과 사고능력의 상실을 종말론적으로 선언하는 저자가 아닙니다. 읽는 뇌가 환경에 적응한 우리의 비자연적 훈련의 결과인 까닭에 그것의 상실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 회복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소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